제52호(2018. 9. 19.)

2018년 상반기 우리나라 농축산물 교역과 축산부문 세계 시장 동향

이현근 명수환 유주영

목 차
contents

1. 2018년 상반기 농축산물 교역 동향 ····· 1
2. 쇠고기 세계 시장 동향 ····· 12
3. 돼지고기 세계 시장 동향 ····· 16
4. 닭고기 세계 시장 동향 ····· 20
5. 요약 및 시사점 ····· 23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감 수	허정회 부연구위원	061-820-2324	berliner@krei.re.kr
내용 문의	이현근 전문연구원	061-820-2344	hklee@krei.re.kr
자료 문의	성진석 선임전문원	061-820-2212	jssaint@krei.re.kr

- 「KREI 현안분석」은 농업·농촌의 주요 동향 및 정책 이슈를 분석하여 간략하게 정리한 것입니다.
- 이 자료는 우리 연구원 홈페이지(www.krei.re.kr)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KREI 현안분석 제52호

2018년 상반기 우리나라 농축산물 교역과 축산부문 세계 시장 동향

등 록 | 제6-0007호(1979. 5. 25.)
발 행 | 2018. 9.
발행인 | 김창길
발행처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우) 58217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로 601
대표전화 1833-5500
인쇄처 | (주)한디자인코퍼레이션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공식 견해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명시하면 자유롭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무단 전재하거나 복사하면 법에 저촉됩니다.

요 약
Summary

○ **농축산물 수입액은 2009년 상반기 88.9억 달러에서 2018년 상반기 177.7억 달러로 연평균 8.0% 증가했으며, 국가별 수입순위 변동이 나타나기도 함.**

- FTA 체결국의 비중은 2009년 81.3%에서 2018년 86.5%로 증가했고, 1위 수입국 미국에 이어 ASEAN산 수입액이 중국산을 초과해 2위의 수입국으로 올라섬.

○ **농축산물 수입액에서 쇠고기, 돼지고기와 닭고기 등 축산물의 수입규모가 가장 크고, 국가 및 부위별 수입전환 추세가 나타남.**

- 쇠고기(21.7만 톤)는 미국의 BSE('03.12.) 발생으로 미국산이 호주산으로 대체되었으나,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 이후 미국산 비중이 2018년 48.9%로 1위를 차지
- 돼지고기 수입량은 30만 7천 톤으로 최근 10년간 연평균 8.0% 증가했으며, 품질이 상대적으로 낮은 캐나다산 수입 감소로 EU산과 미국산에 수입이 집중되고 있음.
- 닭고기 수입량은 6만 7천 톤으로 최근 10년간 연평균 5.2% 증가했으며, 미국의 HPAI 발병('14.12.)과 SEM 검출('18.4.) 등으로 브라질산의 독주체제가 굳어지고 있음.

○ **우리나라의 농축산물 수출은 수입보다 더 큰 폭으로 증가했으며, 특히 ASEAN과 미국으로 크게 증가**

- 우리나라 농축산물 수출은 2009년 상반기 14.3억 달러에서 2018년 상반기 35.7억 달러로 연평균 10.7% 증가했으며, 전통적으로 일본이 차지하던 1위 수출대상국이 2018년 들어 ASEAN으로 전환됨.

○ **FTA 수입 특혜관세 활용률은 2012년 이후 꾸준히 증가해 80.3%를 기록했고, FTA 수출 특혜관세 활용률은 증감을 반복해 2018년 상반기 46.4%로 2015년 수준을 회복 중**

○ **농축산물 수출 증가에도 불구하고 농업부문 무역수지('18년 상반기 142억 달러 적자)는 점차 악화되고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과 수입보다 낮은 FTA 수출 특혜관세 활용률을 제고할 수 있는 대응방안 마련이 요구됨.**

- 수출이 급증하고 있는 ASEAN과 시장규모가 큰 중국에 대한 수출 특혜관세 활용률이 특히 낮은데, 국내 관련 제도의 개선 및 보완과 상대국에서의 통관상 애로사항 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민관 협의체 구성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세계 축산물 시장의 공급과 수출량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반면, 비식용물질 검출, ASF 발생 등 주요 수출국의 수급상황 변화는 우리나라의 축산물 수입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따라서, 세계 축산물 시장 변화가 국내 농업부문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농축산물 수급 및 교역동향에 대한 지속적이고 면밀한 모니터링이 요구됨.**

- 2018년 전 세계 쇠고기, 돼지고기와 닭고기 생산량은 전년 대비 각각 2.4%, 2.3%와 1.9%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수출량도 각각 5.1%, 0.7%와 2.2% 증가 전망

01 2018년 상반기 농축산물 교역 동향[1)]

2018년 상반기 농축산물 수입액은 최근 10년 동안 연평균 8.0% 증가한 177억 7천만 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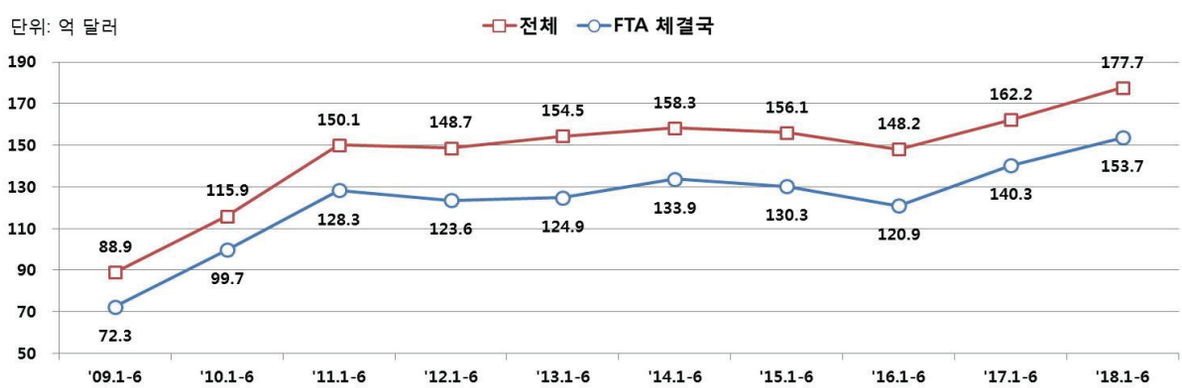
1.1. 농축산물 수입 동향

□ 2018년 상반기 우리나라의 농축산물 총수입액은 최근 10년 동안 연평균 8.0% 증가

○ 2018년 상반기 농축산물 총수입액은 2009년 이후 연평균 8.0% 증가하고 전년 동기 대비 9.5% 증가한 177억 7천만 달러임.

- FTA 체결국[2)] 비중은 증감을 반복하는데 2010년 상반기 86.0%를 기록한 이후 2016년 상반기 81.6%까지 감소했고, 2018년 상반기 86.5%로 다시 증가
  - · FTA 체결국 수입액 비중(%): 81.3('09) → 85.5('11) → 80.9('13) → 83.5('15) → 86.5('18)

〈그림 1〉 농축산물 총수입액 동향



자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농축산물 수입액이 가장 많은 미국을 비롯해 ASEAN산과 EU산 수입액 비중이 증가추세

- 미국산 농축산물 수입액 비중은 2009년 상반기 23.9%에서 2018년 상반기 27.0%로 증가
- EU산 농축산물 수입액 비중은 2009년 상반기 8.7%에서 2018년 상반기 12.5%로 증가
- ASEAN산과 중국산 농축산물 수입규모는 대체로 비슷하지만 2015년 이후로 ASEAN산 수입액이 중국산 수입액을 초과해 ASEAN의 비중이 커지고 있음.
  - · 미국산 수입액 비중(%): 23.9('09) → 27.0('18), ASEAN산 수입액 비중(%): 12.4('09) → 15.3('18)
  - · 중국산 수입액 비중(%): 15.8('09) → 12.7('18), EU산 수입액 비중(%): 8.7('09) → 12.5('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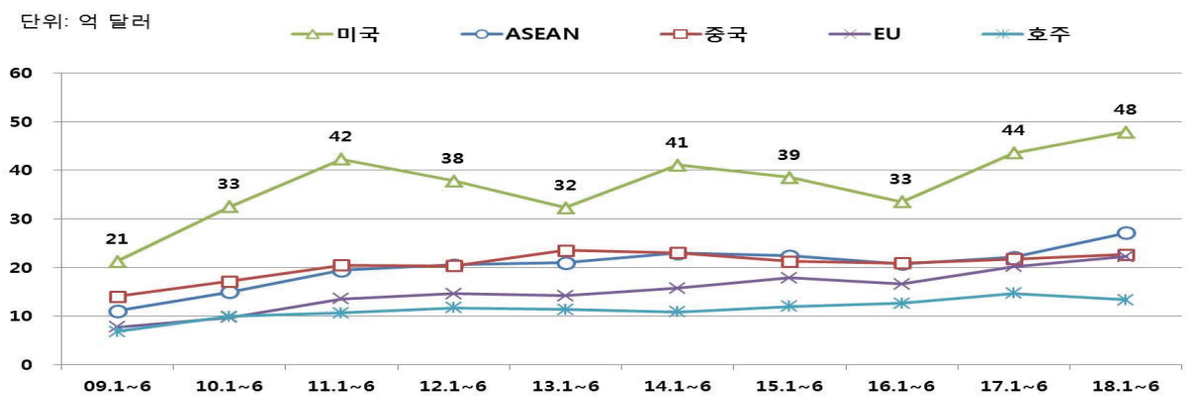
1) 농축산물 교역동향은 2,924개 HS코드를 기준으로 집계함.

2) FTA 체결국은 2018년 현재 FTA가 발효된 15건의 FTA에 해당되는 52개 국가를 나타내며, 2009년부터 동일하게 적용함.

축산물과 과일·채소 수입액은 각각 37.8억 달러와 18.1억 달러로 증가추세가 뚜렷

- 인도네시아, 대만, 우루과이, 콜롬비아산 수입액은 2009년 이후 연평균 10% 이상, 베트남, 페루, 라트비아와 파라과이산 수입액은 연평균 20% 이상 큰 폭으로 증가

〈그림 2〉 주요 국가별 농축산물 수입액 동향



자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부류별 수입액 동향을 보면 축산물과 과일·채소의 증가추세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가공식품도 꾸준한 증가추세를 보임.

- 2018년 상반기 축산물 수입액은 37억 8천만 달러로 2009년 이후 연평균 13.7% 증가했으며, 전년 동 기간에 비해서는 14.6%의 큰 폭으로 증가
- 과일·채소 수입액은 18억 1천만 달러로 연평균 11.5%, 전년 동기 대비 7.4% 증가
- 수입액 비중이 가장 큰 가공식품(50.5억 달러)은 연평균 8.7%, 전년 동기 대비 5.6% 증가

〈표 1〉 농축산물 부류별 수입액 동향

단위: 백만 달러, %

구분	'09.1~6.	'10.1~6.	'11.1~6.	'12.1~6.	'13.1~6.	'14.1~6.	'15.1~6.	'16.1~6.	'17.1~6.	'18.1~6.
전체	9,016	11,594	15,014	14,868	15,450	15,828	15,608	14,815	16,220	17,765
농산물	5,871	7,053	9,254	9,447	9,994	9,612	9,262	8,767	9,478	10,047
- 곡물	2,802	3,000	3,799	3,854	4,498	3,990	3,492	3,006	3,009	3,184
- 과일·채소	682	868	1,170	1,302	1,364	1,434	1,551	1,537	1,688	1,813
- 가공식품	2,388	3,186	4,285	4,291	4,132	4,188	4,220	4,224	4,782	5,050
임산물	1,954	2,966	3,129	3,002	3,193	3,610	3,466	3,254	3,440	3,933
축산물	1,191	1,575	2,632	2,419	2,263	2,606	2,879	2,794	3,302	3,785

주: 곡물은 곡류, 기타 곡식류, 두류, 서류, 전분, 박류, 채유종실의 소계, 과일·채소는 과실, 채소, 화훼, 버섯류(농산물), 기타 산식물의 소계, 가공식품은 농산물 소계에서 곡물과 과일·채소를 제외한 값.
자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축산물 중에서는 쇠고기와 돼지고기 수입액이 대부분을 차지하며, 국가 및 부위별 수입전환 추세 뚜렷

□ 축산물 수입액에서 쇠고기와 돼지고기가 대부분을 차지하며, 국가 및 부위별 수입전환 추세 뚜렷

○ 축산물에서 쇠고기와 돼지고기 수입액은 전체 수입액의 각각 8.3%와 5.5%를 차지하고 축산물에서는 각각 39.2%와 25.6%로 비교적 큰 비중을 차지함.

- 2018년 상반기 쇠고기 수입액은 14억 8천만 달러로 연평균 13.7% 증가했고, 돼지고기 수입액은 같은 기간 13.3% 증가함.

○ 2018년 상반기 쇠고기 수입량은 21만 7천 톤으로 2009년 이후 연평균 7.6% 증가했으며, 주로 냉동쇠고기와 냉동갈비가 수입되고 있음.

- 냉동쇠고기 수입량은 호주산(5.7만 톤)이 54.4%를 차지하고 있으나, 전년 동 기간 대비 2.3% 감소했고, 미국산(4.1만 톤)은 전년 동 기간 대비 25.9% 증가
- 냉장쇠고기 수입량은 전체 수입량의 11.0%에 불과했으나 최근 냉장육 수요 증가로 2018년 상반기 17.6%로 증가함. 특히 미국산 수입량이 연평균 31.0%, 전년 동 기간 대비 27.2% 증가한 2만 2천 톤을 기록함.

〈표 2〉 쇠고기의 주요 세번·국가별 수입 동향

단위: 천 톤

구 분		'09. 1~6.	'10. 1~6.	'11. 1~6.	'12. 1~6.	'13. 1~6.	'14. 1~6.	'15. 1~6.	'16. 1~6.	'17. 1~6.	'18. 1~6.	변화율(%)	
												연평균	전년 대비
전체 수입량		112	138	165	143	143	156	139	183	199	217	7.6	9.2
냉동 쇠고기	소계	49	62	73	56	66	73	73	93	98	105	8.8	7.1
	호주	31	33	38	32	41	46	50	61	59	57	6.9	-2.3
	미국	9	17	24	19	19	22	18	25	33	41	18.6	25.9
냉동 갈비	소계	28	31	39	38	37	39	38	53	53	59	8.7	10.7
	미국	12	15	23	21	19	23	21	34	35	39	14.3	12.3
	호주	9	8	9	8	9	9	11	11	11	13	4.2	12.6
	뉴질랜드	7	8	7	7	8	6	6	7	5	5	-3.9	-2.6
냉장 쇠고기	소계	11	15	19	15	15	17	19	25	33	38	14.5	16.0
	미국	2	3	4	4	4	4	6	9	17	22	31.0	27.2
	호주	9	12	15	11	12	13	13	16	16	16	6.7	3.5
쇠고기 기타	소계	24	30	34	34	25	27	9	12	14	15	-5.3	1.6
	호주	18	19	19	20	15	17	6	8	9	9	-6.8	8.6
	미국	2	5	10	9	7	7	2	3	5	4	8.3	-1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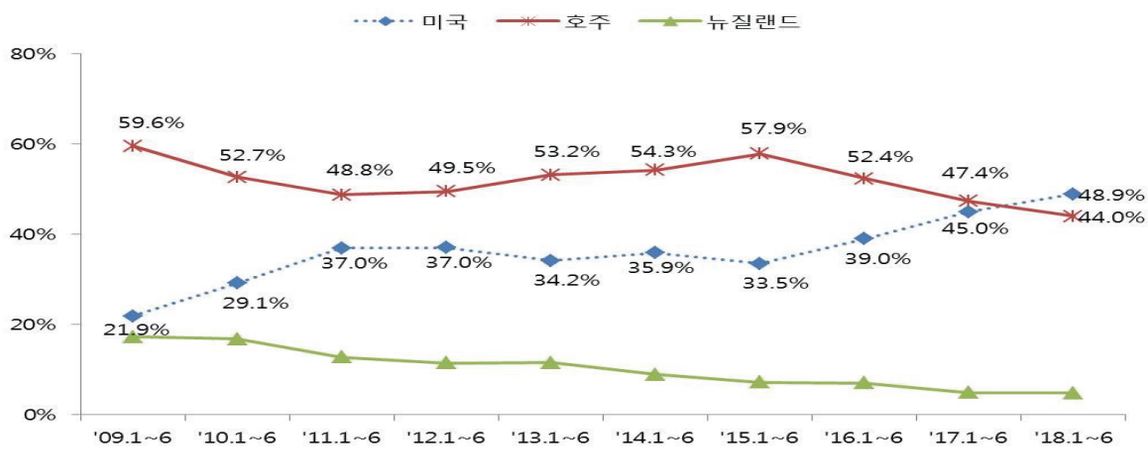
주: 쇠고기 기타는 훈제, 염장, 통조림 등 가공식품과 식용설육, 족, 꼬리 등 기타부위가 포함됨.
자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미국산 쇠고기 수입량 비중은 48.9%로 2003년 이후 처음으로 호주산을 초과

○ 2003년 12월 미국의 BSE 발생을 계기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호주산으로 대체되었으나,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 이후 수입량이 증가해 2018년 들어 역전됨.

- 2009년 상반기 미국산과 호주산 쇠고기 수입량 비중은 각각 21.9 %와 59.6%로 호주산이 많았으나, 2018년 상반기 비중은 각각 48.9%와 44.0%로 미국산 비중이 높아짐.

〈그림 3〉 주요 국가별 쇠고기 수입점유율(중량 기준) 추이



자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 돼지고기 수입량은 EU산과 미국산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캐나다산 수입량이 감소하면서 EU산과 미국산 수입량 비중이 증가추세를 보임.

- EU산 수입량 비중은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경쟁력을 바탕으로 2009년 상반기 34.8%에서 2018년 상반기 47.3%까지 증가했고, 미국산도 같은 기간 32.6%에서 37.6%로 증가
- 캐나다산은 EU산에 비해 발골 작업이 정교하지 못해 국내 소비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상대적으로 높은 곡물가격으로 인해 생산량 자체도 많지 않아 수입이 감소추세를 보임.

○ 2018년 상반기 돼지고기 수입량은 30만 7천 톤으로 수입단가 하락과 냉동가공육 원료 수요 증가 등으로 2009년 이후 연평균 8.0%, 전년 동기 대비 16.5% 증가

- 냉동돼지고기는 미국산 수입량이 10만 5천 톤으로 가장 큰 비중(48.4%)을 차지하고 2009년 이후 연평균 9.2%, 전년 동 기간 대비 24.4%의 큰 폭으로 증가
- EU산 냉동돼지고기 수입량은 8만 7천 톤(40.0%)으로 연평균 18.0%, 전년 동 기간 대비 19.9% 증가
- 냉동삼겹살은 EU산(86.3%)과 칠레산(12.9%)이 수입되며, EU산 수입량은 전년 동 기간 대비 10.7% 감소한 반면 칠레산은 27.6% 증가

돼지고기 수입량은 수입단가 하락과 냉동 가공육 원료 수요 증가 등으로 증가추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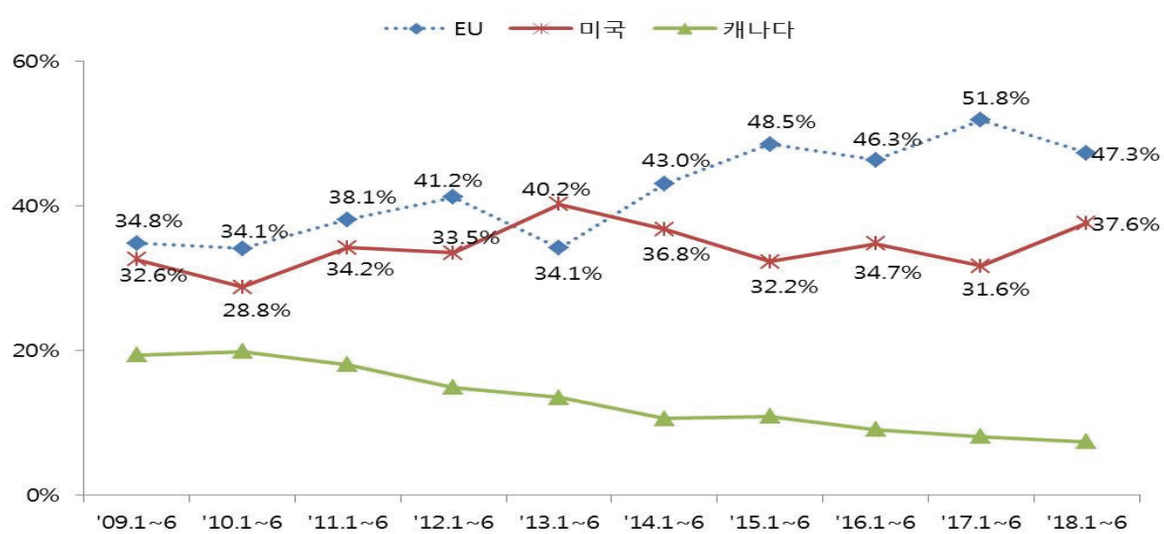
〈표 3〉 돼지고기의 주요 세번·국가별 수입 동향

단위: 천 톤

구 분		'09. 1~6.	'10. 1~6.	'11. 1~6.	'12. 1~6.	'13. 1~6.	'14. 1~6.	'15. 1~6.	'16. 1~6.	'17. 1~6.	'18. 1~6.	변화율(%)	
												연평균	전년 대비
전체 수입량		154	155	274	230	171	183	236	236	263	307	8.0	16.5
냉동 돼지 고기	소계	99	100	178	139	110	113	167	161	175	218	9.2	24.4
	미국	44	38	81	67	59	58	71	79	78	105	10.2	35.1
	EU	20	22	43	33	20	30	66	57	73	87	18.0	19.9
	캐나다	26	26	39	27	20	16	21	15	15	16	-5.6	7.1
	칠레	8	11	12	9	9	7	8	8	7	6	-2.8	-5.1
냉동 삼겹살	소계	45	44	66	68	42	50	55	60	71	64	4.1	-9.3
	EU	33	30	55	59	33	44	47	51	62	56	5.9	-10.6
	칠레	10	11	8	8	7	5	6	9	7	8	-2.5	27.6
냉장 삼겹살	소계	4	4	7	8	4	4	5	5	7	8	9.0	12.0
	멕시코	0	0	1	1	0	1	2	2	3	3	-	-10.9
	캐나다	2	2	3	3	1	1	1	2	2	3	3.8	49.1
	칠레	0	0	1	1	1	1	1	0	1	1	16.4	35.0
돼지 고기 기타	소계	7	8	24	14	15	15	9	10	10	17	10.8	64.9
	미국	4	4	10	7	6	7	3	2	2	9	8.3	294.2
	EU	1	1	6	2	5	5	2	2	1	2	13.1	72.2
	캐나다	1	2	7	4	2	3	4	5	5	4	15.6	-11.0

주: 돼지고기 기타는 통조림 등의 가공품과 식용설육, 넓적다리, 어깨살 등 기타부위가 포함됨.
자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그림 4〉 주요 국가별 돼지고기 수입점유율 추이



자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닭고기 수입은 미국의 HPAI 발병과 SEM 검출로 미국산이 브라질산으로 대체

○ 닭고기 수입량은 2014년까지 미국산이 브라질산보다 많았으나, 미국의 HPAI 발병('14.12.21.)으로 미국산 닭고기 수입이 금지되면서 브라질산 비중이 급격히 높아짐.

- 2011년 상반기 미국산 비중은 75.4%에 달했으나, HPAI 발생으로 수입이 급격히 감소
- 미국산 수입량은 2016년 청정국 지위회복 이후 2018년 상반기 12.1%로 회복되었으나, 최근('18.4.10.) 미국산 닭고기의 SEM 검출[3]로 다시 감소추세로 전환
- 브라질산 수입량은 미국 HPAI 발생 이후 급격히 증가해 2016년 상반기 90.1%에 이르렀으나, 미국산 수입량 회복으로 78.9% 수준으로 감소

〈표 4〉 닭고기의 주요 세번·국가별 수입 동향

단위: 천 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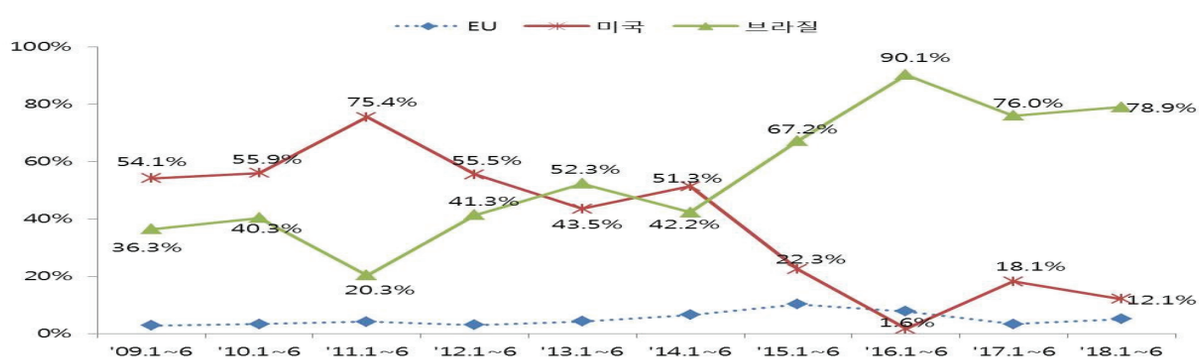
구 분		'09. 1~6.	'10. 1~6.	'11. 1~6.	'12. 1~6.	'13. 1~6.	'14. 1~6.	'15. 1~6.	'16. 1~6.	'17. 1~6.	'18. 1~6.	변화율(%)	
												연평균	전년 대비
전체 수입량		25	45	66	59	54	60	45	51	52	67	11.3	29.0
냉동 닭다리	소계	21	37	57	53	50	55	40	47	48	60	12.4	23.9
	브라질	6	13	7	21	26	24	29	29	38	51	26.1	33.2
	미국	13	23	50	32	23	31	10	1	9	8	-5.4	-15.2

주: 닭고기 부위는 닭다리 외에 닭날개, 닭가슴과 기타가 있으나 수입량이 미미해 표에서 제외함.
자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2018년 상반기 닭고기 수입량은 6만 7천 톤으로 연평균 11.3%, 전년 동기 대비 29.0% 증가

- 냉동닭다리는 브라질산 수입량이 5만 1천 톤으로 가장 큰 비중(85.2%)을 차지하고 2009년 이후 연평균 26.1%, 전년 동 기간 대비 33.2%의 큰 폭으로 증가

〈그림 5〉 주요 국가별 닭고기 수입점유율 추이



자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3) SEM(세미카바자이드)은 니트로푸란계 대사물질로 화상 또는 외상이 있는 경우 세균 감염을 예방하거나 치료하는 목적으로 사용되는 동물용 의약품이며, 우리나라는 불검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식품의약품안전처 보도자료, '18.2.14., 4.10.).

2018년 상반기 농축산물 수출액은 최근 10년간 연평균 10.7% 증가한 35억 7천만 달러

1.2. 농축산물 수출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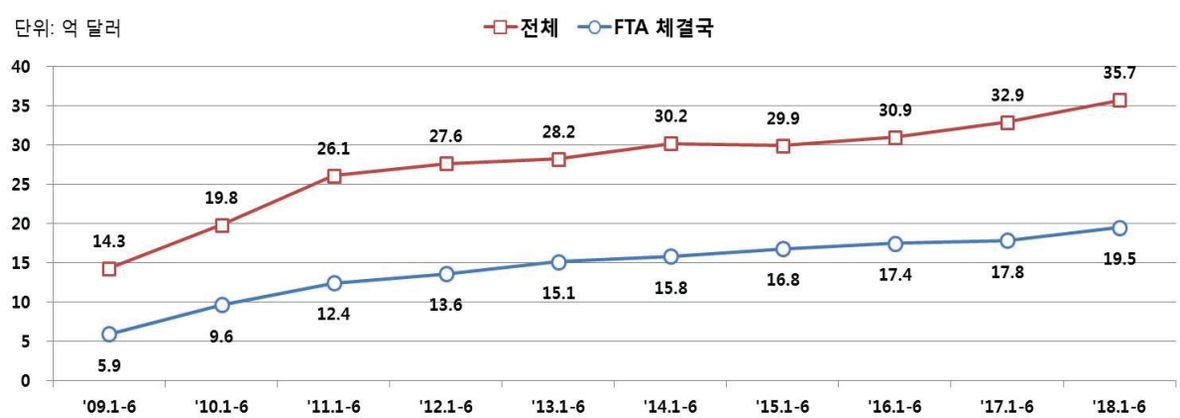
□ 2018년 상반기 우리나라의 농축산물 총수출액은 2009년 이후 연평균 10.7% 증가

○ 2018년 상반기 농축산물 총수출액은 최근 10년 동안 연평균 10.7% 증가하고 전년 동기 대비 8.5% 증가한 35억 7천만 달러

- FTA 체결국으로의 수출액 비중은 전반적으로 증가추세이나 2013년 이후로 50% 중반 수준에서 정체상태를 보임.

  · FTA 체결국 수출액 비중(%): 48.7('10) → 49.2('12) → 52.3('14) → 56.4('16) → 54.6('18)

〈그림 6〉 농축산물 총수출액 동향



자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ASEAN으로의 농축산물 수출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기타 FTA체결국의 비중도 증가추세를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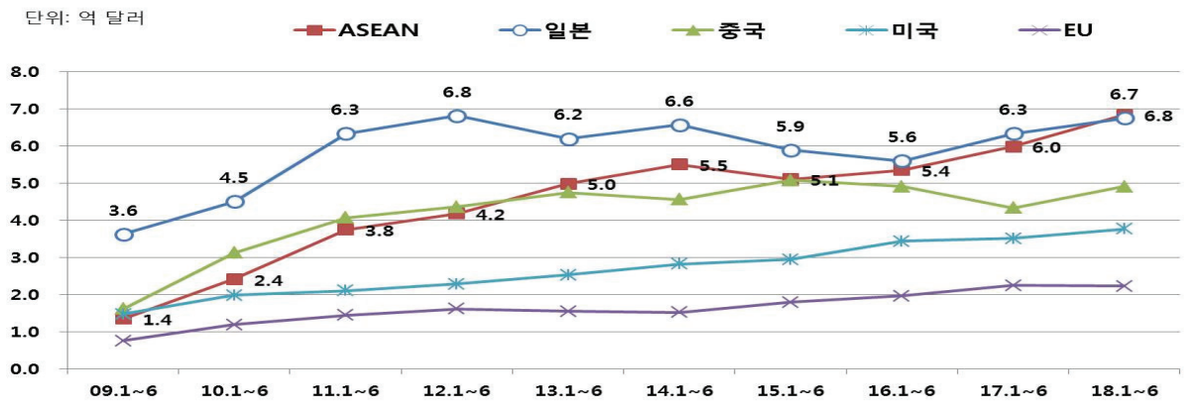
- 우리나라의 농축산물 수출액은 전통적으로 일본(6.7억 달러)이 가장 많지만 그 비중은 2009년 상반기 25.4%에서 2018년 상반기 18.9%로 감소했고, ASEAN(6.8억 달러)은 같은 기간 9.5%에서 19.2%로 증가

  · 대ASEAN 수출액 비중(%): 12.2('10) → 19.2('18), 대일본 수출액 비중(%): 22.7('16) → 18.9('18)

- 2018년 상반기 대미국과 대EU 수출액은 각각 3억 8천만 달러(10.6%)와 2억 2천만 달러(6.2%)로 연평균 각각 11.0%와 12.8% 증가함.

농축산물 수출은 ASEAN으로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과일·채소와 축산물이 크게 기여

〈그림 7〉 주요 국가별 농축산물 수출액 동향



자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농축산물 수출은 모든 부류에서 증가추세를 보이며, 과일·채소와 축산물이 전체 수출 증가에 기여

○ 농축산물 수출은 전반적으로 모든 부류에서 증가추세를 보이며, 과일·채소와 축산물 수출이 전년 동 기간 대비 크게 증가함.

- 2018년 상반기 과일·채소 수출액은 3억 5천만 달러로 2009년 이후 연평균 6.3%, 전년 동기간 대비 16.6% 증가함.
- 축산물 수출액은 2억 달러로 연평균 4.2%, 전년 동 기간 대비 21.9% 증가함.

〈표 5〉 농축산물 부류별 수출액 동향

단위: 백만 달러, %

구분	'09.1~6.	'10.1~6.	'11.1~6.	'12.1~6.	'13.1~6.	'14.1~6.	'15.1~6.	'16.1~6.	'17.1~6.	'18.1~6.
전체	1,628	1,981	2,608	2,762	2,821	3,019	2,946	3,093	3,288	3,568
농산물	1,395	1,696	2,245	2,356	2,320	2,530	2,568	2,690	2,915	3,151
- 곡물	44	40	64	41	66	100	72	61	76	80
- 과일·채소	204	244	246	308	298	307	277	319	302	353
- 가공식품	1,147	1,412	1,934	2,007	1,956	2,123	2,219	2,311	2,536	2,718
임산물	99	143	197	217	292	281	153	189	213	222
축산물	135	142	165	189	209	207	225	215	160	196

주: 곡물은 곡류, 기타 곡식류, 두류, 서류, 전분, 박류, 채유종실의 소계, 과일·채소는 과실, 채소, 화훼, 버섯류(농산물), 기타 산식물의 소계, 가공식품은 농산물 소계에서 곡물과 과일·채소를 제외한 값.
자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2018년 상반기 농축산물 FTA 수입 특혜관세 활용률은 80.3%

1.3. 농축산물 FTA 특혜관세 활용률[4)]

□ 2018년 상반기 FTA 체결국 농축산물의 FTA 수입 특혜관세 활용률은 전년과 비슷한 80.3%

○ 2018년 상반기 FTA 체결국 농축산물 수입액에서 'FTA 대상 품목'의 수입액은 129억 달러이며, 그중 FTA 수입 특혜관세 활용 수입액은 103억 달러

- 2012년 이후 'FTA 대상 품목' 및 'FTA 특혜관세 활용' 수입액은 각각 연평균 3.2%와 18.7% 증가하는 추세를 보임.

〈표 6〉 FTA 체결국별 농축산물 수입 특혜관세 활용률

단위: %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 1~6.	전년 대비 증감분(%p)
체결국 전체	55.4	69.1	67.8	74.4	78.3	80.7	80.3	-0.3
칠레	59.4	59.8	66.5	65.9	65.5	57.2	58	0.8
싱가포르	80.7	79.6	78.6	76.5	75.6	78.9	82.5	3.7
EFTA	76.8	76.5	75.5	74.8	76	72.5	72.1	-0.4
ASEAN	59.4	59.4	62.3	62.3	85	88.6	89.4	0.8
인도	82	79.8	76.7	85.5	89.7	87.5	82.1	-5.3
EU	63.9	73.7	82.4	81.5	84.5	85.1	83	-2.1
페루	97.2	95.9	95.2	97.3	97.2	96.3	96.6	0.3
미국	47	72.7	63.3	71.6	71.7	70.2	70.6	0.4
터키	-	-	68.4	79.1	83.6	87.8	89.8	2.1
호주	-	-	-	90	94.1	94	93.9	-0.1
캐나다	-	-	-	-	92.2	93.2	94.3	1.1
뉴질랜드	-	-	-	-	49.8	80.6	81.6	1.1
중국	-	-	-	-	63.5	72.7	76.8	4.1
베트남	-	-	-	-	84.1	89	88.2	-0.8
콜롬비아	-	-	-	-	-	91.5	92.1	0.6

주 1) 2012년부터 2017년까지는 연간 수입액 기준이며, 2018년은 1~6월 수입액 기준임.
2) FTA 특혜관세 활용률은 해당 협정이 발효된 이후부터 제시했으며, FTA 체결 순서대로 정렬함.
자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국가법령정보센터.

○ FTA 수입 특혜관세 활용률을 국가별로 보면 칠레, EFTA, 미국과 중국이 전체 평균 이하의 활용률을 보이며, 페루, 호주, 캐나다와 콜롬비아는 90% 이상의 활용률을 나타냄.

- 칠레, EFTA와 미국의 FTA 수입 특혜관세 활용률은 2012년 이후 증가추세를 보이다가 2017년부터 감소추세를 보여 2018년 상반기 각각 58%, 72.1%와 70.6%를 기록함.

4) FTA 특혜관세 활용률은 농축산물 관련 2,924개 HS코드를 기준으로 산출했으며, FTA 이행에 따른 양허대상 농축산물 수출입액에서 원산지증명서를 이용하여 실제 관세인하 혜택을 받은 수출입액의 비율을 산출함.

2018년 상반기 농축산물 FTA 수출 특혜관세 활용률은 46.4%

- 중국의 경우 FTA 발효 이후 FTA 수입 특혜관세 활용률이 꾸준히 증가해 76.8%를 기록했지만, 전체 평균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음.
- 페루와 호주의 FTA 수입 특혜관세 활용률은 각각 96.6%와 93.9%에 이르지만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캐나다(94.3%)와 콜롬비아(92.1%)는 증가추세를 이어가고 있음.

□ **우리나라 농축산물의 대FTA 체결국 수출 특혜관세 활용률은 증감을 반복하며, 2018년 상반기 수출 특혜관세 활용률은 전년 대비 4.0%p 증가한 46.4%**

○ 2018년 상반기 우리나라의 대FTA 체결국 농축산물 수출액은 22억 달러이며, 그중 FTA 수출 특혜관세 활용 수출액은 10억 달러

- 2012년 이후 대FTA 체결국 농축산물 수출액 및 FTA 특혜관세 활용 수출액은 각각 연평균 41.7%와 36.0% 증가하는 추세를 보임.

〈표 7〉 대FTA 체결국 농축산물 수출 특혜관세 활용률

단위: %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 1~6	전년 대비 증감분(%p)
체결국 전체	50	53.1	54.6	47.6	39.7	42.4	46.4	4
칠레	30.1	32.5	44.1	47.4	48.2	38	40.8	2.8
싱가포르	-	-	-	32.5	30.4	29	33.6	4.6
EFTA	78.8	73.5	87	83.7	36.8	42.9	53.9	11
ASEAN	-	-	-	42.9	41	39.9	41.3	1.4
인도	-	-	-	49.2	57.8	49.3	60.3	11
EU	58.7	63.5	70.3	69.5	54.9	50.9	60.4	9.5
페루	53.4	67.6	39.3	83.6	71.4	57.5	57.3	-0.1
미국	43	47.1	46.2	47.8	48.6	46.8	49.6	2.9
터키	-	-	43.8	58.4	60.8	78.5	85.9	7.4
호주	-	-	-	34.9	36.9	36.8	56.3	19.5
캐나다	-	-	-	-	63.3	60.9	54.4	-6.6
뉴질랜드	-	-	-	-	38.7	51.9	59.1	7.2
중국	-	-	-	-	28.9	42.2	48	5.8
베트남	-	-	-	-	30.1	32	34.4	2.4
콜롬비아	-	-	-	-	-	8.3	8.4	0.1

주 1) 2012년부터 2017년까지는 연간 수출액 기준이며, 2018년은 1~6월 수출액 기준임.
2) FTA 특혜관세 활용률은 해당 협정이 발효된 이후부터 제시했으며, FTA 체결 순서대로 정렬함.
자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FTA 수출 특혜관세 활용률을 국가별로 보면 칠레, 싱가포르, ASEAN, 베트남과 콜롬비아를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가 평균 수준보다 높은 활용률을 나타냄.

- ASEAN(41.3%)과 중국(48.0%)의 2018년 상반기 수출 특혜관세 활용률은 전년 대비 각각 1.4%p와 5.8%p 증가했으며, 캐나다(△6.6%p)와 페루(△0.1%p)를 제외한 FTA 체결국 대부분이 전년보다 증가함.
- 대미국 FTA 수출 특혜관세 활용률은 한·미 FTA 발효 이후 연평균 2.4% 증가해 2018년 상반기에는 49.6%로 전년 대비 2.9%p 증가함.
- 호주와 인도의 2018년 상반기 수출 특혜관세 활용률은 전년 대비 각각 19.5%p와 11.0%p의 큰 폭으로 증가함.

02 쇠고기 세계 시장 동향[5)]

2018년 전 세계 쇠고기 생산량은 전년 대비 2.4% 증가한 6,303만 톤으로 전망

2.1. 공급

○ 2018년 전 세계 쇠고기 생산량은 전년 대비 2.4% 증가한 6,303만 톤으로 전망되며, 미국, 브라질, 아르헨티나와 호주의 생산량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미국은 전체 생산량의 20.0%인 1,260만 톤을 생산해 쇠고기 생산규모가 가장 큰 국가이며, 전년 대비 5.6%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브라질의 쇠고기 생산량은 990만 톤(15.7%)으로 전년 대비 3.7% 증가하고, EU의 생산량(786만 톤)은 전년 대비 소폭(0.6%)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 중국의 쇠고기 생산량은 733만 톤(11.6%)으로 전년 대비 소폭(0.9%) 증가하고, 아르헨티나는 292만 톤(4.6%)으로 전년 대비 3.0%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표 8〉 국가별 쇠고기 생산 동향

단위: 천 톤, %

구분	2000	2005	2010	2015	2016	2017	2018F	비중
전체	53,014	56,099	59,247	59,710	60,482	61,557	63,025	100.0
미국	12,298	11,318	12,034	10,817	11,507	11,938	12,601	20.0
브라질	6,520	8,592	9,115	9,425	9,284	9,550	9,900	15.7
EU	8,325	8,136	8,101	7,684	7,880	7,900	7,855	12.5
중국	5,131	5,681	6,531	6,700	7,000	7,260	7,325	11.6
인도	1,525	2,225	3,125	4,100	4,200	4,250	4,300	6.8
아르헨티나	2,880	3,200	2,620	2,720	2,650	2,830	2,915	4.6
호주	2,053	2,090	2,129	2,547	2,125	2,149	2,280	3.6
멕시코	1,900	1,725	1,745	1,850	1,879	1,925	1,960	3.1
파키스탄	886	1,004	1,485	1,710	1,750	1,780	1,800	2.9
터키	625	620	870	1,423	1,484	1,382	1,450	2.3

주: 통계자료는 2018년(추정치) 기준 상위 10개국만 제시함.
자료: USDA FAS psdonline.

○ 미국과 브라질은 국내 요인으로 생산량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반면, 아르헨티나와 호주는 기후조건 등의 영향으로 도축량이 증가해 생산량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5) 본 장은 미국 농무부('18.4.)의 "Livestock and Poultry: World Markets and Trade"를 참고해 작성했으며, 쇠고기의 생산, 수입, 소비, 수출량은 모두 도체중량(carcass weight) 기준임.

2018년 전 세계 쇠고기 수입량은 833만 톤으로 전년 대비 4.8% 증가 전망

- 미국은 국내 축산 농장의 지속적인 확대, 브라질은 도체중량의 증가, 국내 수요와 수출 확대 등으로 생산량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아르헨티나는 건조한 날씨로 인해 목초지의 이용이 원활하도록 소를 시장에 일찍 출하하고 있음.
- 호주는 좋지 않은 날씨와 목초지 상황으로 인해 목장 재건이 어려울 수 있지만, 높은 도체중량으로 인해 생산량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2018년 전 세계 쇠고기 수입량은 833만 톤으로 전년 대비 4.8%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생산량이 많은 미국과 중국이 수입량 비중도 높은 것으로 나타남.
- 2018년 미국과 중국의 쇠고기 수입량은 각각 138만 톤(16.6%)과 120만 톤(14.4%)으로 전년 대비 각각 1.5%와 23.2%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홍콩과 우리나라의 수입량은 각각 58만 톤(7.0%)과 56만 톤(6.7%)으로 전년 대비 각각 6.8%와 5.3%의 비교적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표 9〉 국가별 쇠고기 수입 동향

단위: 천 톤, %

구분	2000	2005	2010	2015	2016	2017	2018F	비중	전년 대비 증감률
전체	5,808	6,800	6,640	7,656	7,705	7,953	8,332	100.0	4.8
미국	1,375	1,632	1,042	1,529	1,367	1,358	1,379	16.6	1.5
중국	16	9	40	663	812	974	1,200	14.4	23.2
일본	1,045	686	721	707	719	817	832	10.0	1.8
홍콩	71	88	154	339	453	543	580	7.0	6.8
한국	333	250	366	414	513	531	559	6.7	5.3
러시아	425	1,054	1,058	621	522	509	400	4.8	-21.4
EU	429	715	437	363	368	338	340	4.1	0.6
이집트	228	222	260	360	340	250	320	3.8	28.0
칠레	124	205	190	245	298	281	295	3.5	5.0
캐나다	290	151	233	269	243	229	235	2.8	2.6

주: 통계자료는 2018년(추정치) 기준 상위 10개국만 제시함.
자료: USDA FAS psdonline.

2018년 전 세계 쇠고기 소비량은 6,091만 톤으로 전년 대비 2.2% 증가 전망

2.2. 소비

○ 2018년 전 세계 쇠고기 소비량은 6,091만 톤으로 전년 대비 2.2%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쇠고기 소비량이 가장 많은 국가는 미국으로 전체 소비량의 20.7%인 1,259만 톤을 소비하고 있으며, 그 다음은 중국(853만 톤, 14.0%), 브라질(794만 톤, 13.0%), EU(783만 톤, 12.8%) 등의 순임.
- 터키의 쇠고기 소비량은 150만 톤(2.5%)으로 전년 대비 6.5%의 비교적 큰 폭의 소비량 증가율을 기록함.
- 우리나라의 국내소비량은 83만 톤(1.4%)으로 전년 대비 1.6%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표 10〉 국가별 쇠고기 소비 동향

단위: 천 톤, %

구분	2000	2005	2010	2015	2016	2017	2018F	비중	전년 대비 증감률
전체	52,915	55,613	58,148	57,817	58,769	59,600	60,910	100.0	2.2
미국	12,502	12,664	12,026	11,276	11,678	12,046	12,592	20.7	4.5
중국	5,100	5,614	6,520	7,339	7,759	8,227	8,530	14.0	3.7
브라질	6,105	6,795	7,592	7,781	7,652	7,750	7,935	13.0	2.4
EU	8,157	8,605	8,202	7,744	7,904	7,871	7,825	12.8	-0.6
아르헨티나	2,545	2,451	2,346	2,534	2,434	2,537	2,565	4.2	1.1
인도	1,181	1,608	2,208	2,294	2,436	2,401	2,400	3.9	-0.0
멕시코	2,321	2,028	1,938	1,797	1,809	1,841	1,860	3.1	1.0
파키스탄	886	1,003	1,451	1,636	1,685	1,721	1,736	2.9	0.9
러시아	2,013	2,563	2,488	1,966	1,847	1,812	1,685	2.8	-7.0
터키	630	625	872	1,457	1,496	1,408	1,500	2.5	6.5

주: 통계자료는 2018년(추정치) 기준 상위 10개국만 제시함.
자료: USDA FAS psdonline.

○ 2018년 전 세계 쇠고기 수출량은 1,047만 톤으로 전년 대비 5.1%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쇠고기 수출은 인도, 미국, 캐나다와 EU 등을 제외하면 대부분 남반구 국가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브라질(203만 톤, 19.3%), 인도(190만 톤, 18.1%), 호주(161만 톤, 15.4%)와 미국(137만 톤, 13.1%)의 수출량은 전년 대비 각각 9.1%, 2.8%, 8.3%와 5.7%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파라과이(40만 톤, 3.8%)와 멕시코(31만 톤, 2.9%)의 쇠고기 수출량은 전년 대비 각각 5.8%와 8.9%의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2018년 전 세계 쇠고기 수출량은 1,047만 톤으로 전년 대비 5.1% 증가 전망

〈표 11〉 국가별 쇠고기 수출 동향

단위: 천 톤, %

구분	2000	2005	2010	2015	2016	2017	2018F	비중	전년 대비 증감률
전체	5,941	7,363	7,792	9,583	9,420	9,969	10,474	100.0	5.1
브라질	488	1,845	1,558	1,705	1,698	1,856	2,025	19.3	9.1
인도	344	617	917	1,806	1,764	1,849	1,900	18.1	2.8
호주	1,316	1,388	1,368	1,854	1,480	1,486	1,610	15.4	8.3
미국	1,120	316	1,043	1,028	1,159	1,298	1,372	13.1	5.7
뉴질랜드	473	577	530	639	587	593	560	5.3	-5.6
캐나다	563	596	523	397	441	469	480	4.6	2.3
우루과이	236	417	347	373	421	435	420	4.0	-3.4
파라과이	58	180	283	381	389	378	400	3.8	5.8
EU	663	248	336	303	344	367	370	3.5	0.8
아르헨티나	354	754	277	186	216	293	350	3.3	19.5
멕시코	12	32	103	228	258	280	305	2.9	8.9

주: 통계자료는 2018년(추정치) 기준 상위 11개국만 제시함.
자료: USDA FAS psdonline.

○ 러시아가 최대 육류 수입국인 브라질에 대한 수입 제재('17.12.1.)를 시행함에 따라 브라질산 쇠고기가 대체시장인 아시아 시장으로 수출을 늘릴 것으로 전망됨.[6)]

- 브라질산 쇠고기에는 러시아에서 금지된 호르몬 물질인 근육 성장 촉진제 락토파민(ractopamine)이 검출되어 수입이 금지됨.[7)]
- 러시아는 쇠고기 수입량의 60~65%를 브라질에서 수입하고 있으나 브라질산 수입금지로 인해 수입대상국이 다변화될 것으로 예상됨.[8)]

○ 중국과 홍콩의 경우 자국 내 쇠고기 생산량이 증가하는 수요를 만족시킬 수 없는 수준이기 때문에 수입 수요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 2018년 중국의 쇠고기 생산량은 733만 톤으로 예상되지만 소비량은 이를 뛰어넘는 853만 톤으로 예상됨.

6) https://www.globalmeatnews.com/Article/2017/11/23/Russia-bans-Brazilian-meat?utm_source=copyright&utm_medium=OnSite&utm_campaign=copyright(검색일자: 2018.7.12.)

7) 최근 브라질 정부는 러시아의 브라질산 육류에 대한 기술적인 문제를 해결했고, 정책적인 장애물을 제거했기 때문에 2018년 8월 말부터는 수출이 재개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https://www.globalmeatnews.com/Article/2018/08/09/Brazil-and-Russia-making-pork-progress, 검색일자: 2018.9.11.).

8) UNComtrade에서 조회가능한 2018년 1~3월간 교역자료를 비교해 보면, 브라질산 쇠고기의 경우 전체 수출량은 19만 8천 톤으로 전년 동기 대비 25.2% 감소했지만, 홍콩(5.2만 톤)과 이집트(2.7만 톤)로의 수출은 각각 22.7%와 92.0% 증가했다. 한편, 러시아의 쇠고기 수입량은 5만 1천 톤으로 전년 동기 대비 31.5% 감소했지만, 파라과이(1.2만 톤)산, 인도(2,793톤)산, 우루과이(2,595톤)산과 아르헨티나(2,189톤)산 수입량은 각각 6.8%, 2,416%, 62.4%와 196.3% 증가했다.

03 돼지고기 세계 시장 동향[9)]

2018년 전 세계 돼지고기 생산량은 전년 대비 2.3% 증가한 1억 1천만 톤으로 전망

3.1. 공급

○ 2018년 전 세계 돼지고기 생산량은 전년 대비 2.3% 증가한 1억 1천만 톤으로 전망되며, 미국, 러시아, 한국과 멕시코의 생산량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중국은 전체의 48.2%인 5,465만 톤을 생산해 돼지고기 생산규모가 가장 큰 국가이며, 전년 대비 2.3%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EU의 돼지고기 생산량은 2,405만 톤(21.2%)으로 전년 대비 1.6% 증가하고, 미국의 생산량(1,217만 톤)은 전년 대비 4.8%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브라질의 돼지고기 생산량은 368만 톤(3.2%)으로 전년 대비 소폭(1.3%) 감소하고, 러시아는 305만 톤(2.7%)으로 돼지고기 수입 감소분을 대체하기 위한 국내 자급률 상승 노력에 따라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표 12〉 국가별 돼지고기 생산 동향

단위: 천 톤, %

구분	2000	2005	2010	2015	2016	2017	2018F	비중	전년 대비 증감률
전체	84,760	93,638	102,849	110,422	110,137	110,928	113,463	100.0	2.3
중국	39,660	45,553	50,712	54,870	52,990	53,400	54,650	48.2	2.3
EU	21,684	21,781	22,627	23,249	23,866	23,675	24,050	21.2	1.6
미국	8,596	9,392	10,186	11,121	11,320	11,610	12,166	10.7	4.8
브라질	2,010	2,710	3,195	3,519	3,700	3,725	3,675	3.2	-1.3
러시아	1,341	1,334	1,981	2,615	2,870	2,960	3,050	2.7	3.0
베트남	1,029	1,670	2,217	2,548	2,701	2,741	2,800	2.5	2.2
캐나다	1,509	1,765	1,783	1,899	1,914	1,970	2,015	1.8	2.3
필리핀	1,008	1,175	1,310	1,463	1,540	1,563	1,600	1.4	2.4
한국	1,004	1,036	1,110	1,217	1,266	1,280	1,321	1.2	3.2
멕시코	906	971	1,034	1,164	1,211	1,267	1,305	1.2	3.0

주: 통계자료는 2018년(추정치) 기준 상위 10개국만 제시함.
자료: USDA FAS psdonline.

9) 본 장은 미국 농무부('18.4.)의 "Livestock and Poultry: World Markets and Trade"를 참고해 작성했으며, 생산, 수입, 소비, 수출량은 모두 도체중량(carcass weight) 기준임.

2018년 전 세계 돼지고기 수입량은 793만 톤으로 전년 대비 0.6% 증가 전망

○ 전 세계 돼지고기 생산량은 지속적인 경제성장으로 인한 육류소비 증가로 전년 대비 2%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EU 내 농가의 모돈 증가, 2017년 돼지고기 가격 적정수준 유지 등으로 생산량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그러나 중국의 국내 수요 감소와 유로화 강세로 인한 수출 감소 전망으로 2018년 돼지가격에 변동이 있을 것으로 전망됨.
- 러시아는 브라질산 수입금지 조치로 자국 내 돼지고기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2018년 전 세계 돼지고기 수입량은 793만 톤으로 전년 대비 0.6%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중국, 일본과 멕시코의 수입량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2018년 중국의 돼지고기 수입량은 153만 톤(19.2%)으로 중국 내 생산량 증가로 수입수요가 감소해 전년 대비 5.9% 감소한 반면, 일본은 150만 톤(18.9%)으로 1.7%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멕시코와 필리핀의 돼지고기 수입량은 각각 120만 톤(15.1%)과 29만 톤(3.6%)으로 전년 대비 각각 10.8%와 18.3%의 비교적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러시아는 EU, 캐나다와 브라질 등으로부터 돼지고기 수입을 전면 중단하여 2010년 이후 꾸준히 수입량이 감소하고 있으며, 2018년 수입량은 20만 톤(2.5%)으로 전년 대비 46.7%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표 13〉 국가별 돼지고기 수입 동향

단위: 천 톤, %

구분	2000	2005	2010	2015	2016	2017	2018F	비중	전년 대비 증감률
전체	2,950	4,653	5,844	6,719	7,986	7,884	7,929	100.0	0.6
중국	65	48	415	1,029	2,181	1,620	1,525	19.2	-5.9
일본	947	1,314	1,198	1,270	1,361	1,475	1,500	18.9	1.7
멕시코	276	420	687	981	1,021	1,083	1,200	15.1	10.8
한국	184	345	382	599	615	645	645	8.1	0.0
홍콩	212	263	347	397	429	463	500	6.3	8.0
미국	438	464	390	506	495	506	483	6.1	-4.5
필리핀	28	42	159	175	195	241	285	3.6	18.3
캐나다	68	139	183	216	215	222	230	2.9	3.6
호주	47	105	183	220	210	215	225	2.8	4.7
러시아	307	785	916	408	347	375	200	2.5	-46.7

주: 통계자료는 2018년(추정치) 기준 상위 10개국만 제시함.
자료: USDA FAS psdonline.

2018년 전 세계 돼지고기 소비량은 전년 대비 2.3% 증가한 1억 1천만 톤으로 전망

3.2. 소비

○ 2018년 전 세계 돼지고기 소비량은 전년 대비 2.3% 증가한 1억 1천만 톤으로 전망되며, 미국, 브라질, 멕시코와 필리핀의 소비량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중국은 전체의 49.5%인 5,595만 톤을 생산해 돼지고기 소비규모가 가장 큰 국가임.
- EU의 돼지고기 소비량은 2,116만 톤(18.7%)으로 전년 대비 1.6% 증가하고, 미국의 소비량(995만 톤)은 전년 대비 4.3%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러시아의 돼지고기 소비량은 323만 톤(2.9%)으로 전년 대비 소폭(2.1%) 감소하고, 브라질의 소비량은 305만 톤(2.7%)으로 전년 대비 3.8%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표 14〉 국가별 돼지고기 소비 동향

단위: 천 톤, %

구분	2000	2005	2010	2015	2016	2017	2018F	비중	전년 대비 증감률
전체	84,503	93,196	102,709	109,953	109,817	110,500	113,027	100.0	2.3
중국	39,581	45,099	50,849	55,668	54,980	54,812	55,950	49.5	2.1
EU	20,420	20,789	20,951	20,873	20,753	20,832	21,165	18.7	1.6
미국	8,454	8,660	8,654	9,341	9,475	9,540	9,947	8.8	4.3
러시아	1,648	2,119	2,896	3,016	3,192	3,298	3,230	2.9	-2.1
브라질	1,827	1,949	2,577	2,893	2,870	2,941	3,052	2.7	3.8
일본	2,179	2,509	2,488	2,568	2,626	2,741	2,777	2.5	1.3
베트남	1,010	1,646	2,199	2,526	2,647	2,703	2,777	2.5	2.7
멕시코	1,123	1,332	1,643	2,017	2,091	2,180	2,325	2.1	6.7
한국	1,067	1,311	1,539	1,813	1,894	1,926	1,959	1.7	1.7
필리핀	1,037	1,217	1,468	1,637	1,734	1,803	1,884	1.7	4.5

주: 통계자료는 2018년(추정치) 기준 상위 10개국만 제시함.
자료: USDA FAS psdonline.

○ 2018년 전 세계 돼지고기 수출량은 전년 대비 0.7% 증가한 834만 톤으로 전망되며, 중국, 칠레, 멕시코와 벨라루스의 수출량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EU는 전체의 34.8%(290만 톤)을 수출하는 최대 수출국이며, 전년 대비 1.5%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미국의 돼지고기 수출량은 268만 톤(32.1%)으로 전년 대비 4.7% 증가하고, 캐나다의 수출량(136만 톤)은 전년 대비 소폭(2.3%)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세계 4위의 돼지고기 수출국인 브라질의 돼지고기 수출량은 63만 톤(7.5%)으로 러시아의 수입금지조치[10] 등으로 전년 대비 20.5% 감소하고, 중국의 수출량은 23만 톤(2.7%)으로 전년 대비 8.2%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2018년 전 세계 돼지고기 수출량은 전년 대비 0.7% 증가한 834만 톤으로 전망

○ 돼지고기의 전 세계 수출량은 중남미, 홍콩, 필리핀과 대만의 높은 수요와 낮은 돼지고기 가격 등으로 전년 대비 1%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EU 국내 농가의 암돼지 증가와 2017년 돼지고기 가격 적정수준 유지 등으로 생산량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표 15〉 국가별 돼지고기 수출 동향

단위: 천 톤, %

구분	2000	2005	2010	2015	2016	2017	2018F	비중	전년 대비 증감률
전체	3,084	4,989	6,031	7,235	8,350	8,279	8,341	100.0	0.7
EU	1,311	1,091	1,706	2,388	3,125	2,857	2,900	34.8	1.5
미국	584	1,209	1,915	2,272	2,377	2,555	2,676	32.1	4.7
캐나다	660	1,084	1,159	1,239	1,320	1,324	1,355	16.2	2.3
브라질	162	761	619	627	832	786	625	7.5	-20.5
중국	144	502	278	231	191	208	225	2.7	8.2
칠레	17	128	130	178	173	171	185	2.2	8.2
멕시코	59	59	78	128	141	170	180	2.2	5.9
호주	52	56	41	36	38	43	45	0.5	4.7
베트남	19	22	19	30	65	50	35	0.4	-30.0
벨라루스	19	36	62	5	11	13	25	0.3	92.3

주: 통계자료는 2018년(추정치) 기준 상위 10개국만 제시함.
자료: USDA FAS psdonline.

○ 아프리카돼지열병(African Swine Fever: ASF)이 유럽(러시아, 체코, 헝가리, 라트비아, 몰도바, 폴란드 등), 아프리카(코트디부아르, 케냐, 나이지리아 등)와 중국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세계 돼지고기 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 국내에서는 아직 발생한 적이 없는 매우 위험한 질병으로, 치사율이 거의 100%에 이르는 바이러스성 출혈성 돼지 전염병임.
- 현재('18.9.10.)까지 세계동물보건기구(OIE)에 보고된 발생국은 총 41개국이며, 아프리카가 28개국으로 가장 많고, 유럽(12개국)과 아시아(1개국) 순임.
- 주로 유럽과 아프리카에서 발생하던 아프리카돼지열병이 2018년 8월 3일 중국 요녕성 선양시에서 첫 발생한 이후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우리 정부는 국경검역과 국내방역을 강화함.

10) 러시아 정부는 브라질산 돼지고기에서 사용이 금지된 근육 성장 촉진제 락토파민(ractopamine)이 검출된 점 등을 이유로 최대 돼지고기 수입국인 브라질에 대한 수입 제재('17.12.1.)를 시행함. (한국무역협회, 해외시장뉴스)

04 닭고기 세계 시장 동향[11)]

2018년 전 세계 닭고기 생산량은 전년 대비 1.9% 증가한 9,247만 톤으로 전망

4.1. 공급

○ 2018년 전 세계 닭고기 생산량은 전년 대비 1.9% 증가한 9,247만 톤으로 전망되며, 미국, 브라질과 EU산이 전체의 48.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 미국은 전체 생산량의 20.6%인 1,900만 톤을 생산해 닭고기 생산규모가 가장 큰 국가이며, 전년 대비 1.6%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브라질과 EU의 닭고기 생산량은 각각 1,338만 톤(14.5%)과 1,200만 톤(13.0%)으로 전년 대비 1.7%와 1.4%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중국의 닭고기 생산량은 1,170만 톤(12.7%)으로 전년 대비 소폭(0.9%) 증가하고, 인도는 460만 톤으로 전체의 5.0%를 차지하지만 전년 대비 4.5%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표 16〉 국가별 닭고기 생산 동향

단위: 천 톤, %

구분	2000	2005	2010	2015	2016	2017	2018F	비중	전년 대비 증감률
전체	54,025	64,309	78,029	89,170	89,189	90,718	92,470	100.0	1.9
미국	13,703	15,870	16,563	17,971	18,262	18,696	19,004	20.6	1.6
브라질	5,980	9,350	12,312	13,146	12,910	13,150	13,375	14.5	1.7
EU	7,970	8,169	9,202	10,890	11,560	11,840	12,000	13.0	1.4
중국	9,269	10,200	12,550	13,400	12,300	11,600	11,700	12.7	0.9
인도	1,080	1,900	2,650	3,900	4,200	4,400	4,600	5.0	4.5
러시아	410	950	2,310	3,600	3,730	4,000	4,000	4.3	0.0
멕시코	1,936	2,498	2,822	3,175	3,275	3,400	3,500	3.8	2.9
터키	662	978	1,444	1,909	1,900	2,137	2,250	2.4	5.3
아르헨티나	870	1,030	1,680	2,080	2,055	2,086	2,110	2.3	1.2
태국	1,070	950	1,280	1,700	1,780	1,900	1,965	2.1	3.4

주: 통계자료는 2018년(추정치) 기준 상위 10개국만 제시함.
자료: USDA FAS psdonline.

○ 미국과 브라질의 생산량 증가요인은 낮은 사료가격에 기인한 충분한 공급,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의 방역 강화와 전 세계적인 수요 증가 등이 있음.

- EU와 인도의 경우 국내 수요 증가, 중국은 2015~17년 생산량 감소 이후 HPAI 방역 노력, 안정적인 사료 가격과 내수 회복 등으로 생산량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11) 본 장은 미국 농무부('18.4.)의 "Livestock and Poultry: World Markets and Trade"를 참고해 작성함.

2018년 전 세계 닭고기 소비량은 9,020만 톤으로 전년 대비 1.8% 증가 전망

○ 2018년 전 세계 닭고기 수입량은 901만 톤으로 전년 대비 0.5%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일본의 수입량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2018년 일본의 닭고기 수입량은 115만 톤(12.8%)으로 전년 대비 8.9% 증가하고, 멕시코와 EU는 각각 82만 톤(9.1%)과 71만 톤(7.9%)으로 2.0%와 1.4%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사우디아라비아의 수입량은 45만 톤(5.0%)으로 전년 대비 42.3%의 비교적 큰 폭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표 17〉 국가별 닭고기 수입 동향

단위: 천 톤, %

구분	2000	2005	2010	2015	2016	2017	2018F	비중	전년 대비 증감률
전체	4,256	6,177	7,807	8,638	8,986	8,968	9,010	100.0	0.5
일본	721	748	789	936	973	1,056	1,150	12.8	8.9
멕시코	219	364	549	790	791	804	820	9.1	2.0
EU	170	609	687	730	763	700	710	7.9	1.4
이라크	21	139	522	625	661	656	685	7.6	4.4
남아프리카공화국	72	189	240	457	528	524	529	5.9	1.0
사우디아라비아	277	452	652	863	886	780	450	5.0	-42.3
홍콩	168	222	295	312	344	291	350	3.9	20.3
쿠바	38	113	178	224	233	278	350	3.9	25.9
아랍에미리트 연합	112	167	195	277	296	310	320	3.6	3.2
앙골라	49	103	239	221	205	264	300	3.3	13.6

주: 통계자료는 2018년(추정치) 기준 상위 10개국만 제시함.
자료: USDA FAS psdonline.

4.2. 소비

○ 2018년 전 세계 닭고기 소비량은 9,020만 톤으로 전년 대비 1.8%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미국, 중국, EU와 브라질의 소비량이 전체의 53.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 닭고기 소비량이 가장 많은 국가는 미국으로 전체 소비량의 17.7%인 1,592만 톤을 소비하고 있으며, 그다음은 중국(1,154만 톤, 12.8%), EU(1,141만 톤, 12.6%), 브라질(950만 톤, 10.5%) 등의 순임.
- 2009년 이후 중국의 소비량 비중은 감소하는 반면, 인도는 증가하는 추세를 보임.

2018년 전 세계 닭고기 수출량은 1,128만 톤으로 전년 대비 2.2% 증가 전망

〈표 18〉 국가별 닭고기 소비 동향

단위: 천 톤, %

구분	2000	2005	2010	2015	2016	2017	2018F	비중	전년 대비 증감률
전체	53,466	63,573	76,848	87,413	87,485	88,586	90,209	100.0	1.8
미국	11,477	13,434	13,473	15,094	15,332	15,643	15,923	17.7	1.8
중국	9,393	10,087	12,457	13,267	12,344	11,475	11,535	12.8	0.5
EU	7,422	8,087	8,955	10,441	11,047	11,230	11,410	12.6	1.6
브라질	5,110	6,612	9,041	9,309	9,024	9,306	9,502	10.5	2.1
인도	1,082	1,899	2,648	3,892	4,196	4,396	4,596	5.1	4.5
멕시코	2,153	2,861	3,361	3,960	4,061	4,198	4,314	4.8	2.8
러시아	1,355	2,183	2,959	3,805	3,853	4,083	4,105	4.6	0.5
일본	1,772	1,881	2,083	2,324	2,389	2,489	2,598	2.9	4.4
아르헨티나	901	941	1,475	1,894	1,905	1,911	1,916	2.1	0.3
터키	660	948	1,334	1,588	1,604	1,730	1,828	2.0	5.7

주: 통계자료는 2018년(추정치) 기준 상위 10개국만 제시함.
자료: USDA FAS psdonline.

○ 2018년 전 세계 닭고기 수출량은 1,128만 톤으로 전년 대비 2.2%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주요 수출국인 브라질과 미국이 전체의 62.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 브라질은 2018년 2~5월까지 진행된 정부의 디젤오일 가격인상(1.81 → 2.37헤알)에 따른 화물연대 총 파업('18.5.21.~6월 초)으로 약 5천만 마리 이상의 닭과 병아리를 폐기처분[12] 했으며, 주요 수출 작업장 1개소가 폐쇄하는 등 수출 전망이 불투명함.
- 우리나라는 미국산 냉동 닭고기의 SEM(동물성 항균제) 검출에 따라 약 460만 톤의 수입물량에 대해 판매 중단 및 회수조치를 했으며, 관리 및 검사를 강화하기로 함.[13]

〈표 19〉 국가별 닭고기 수출 동향

단위: 천 톤, %

구분	2000	2005	2010	2015	2016	2017	2018F	비중	전년 대비 증감률
전체	4,774	6,863	8,912	10,285	10,706	11,039	11,277	100.0	2.2
브라질	870	2,739	3,272	3,841	3,889	3,847	3,875	34.4	0.7
미국	2,231	2,360	3,067	2,867	3,014	3,075	3,152	28.0	2.5
EU	718	691	934	1,179	1,276	1,310	1,300	11.5	-0.8
태국	310	240	432	622	690	757	810	7.2	7.0
중국	464	332	379	401	386	436	440	3.9	0.9
터키	2	30	110	321	296	410	425	3.8	3.7
우크라이나	0	9	23	158	236	262	310	2.7	18.3
아르헨티나	11	92	214	187	158	181	200	1.8	10.5
벨라루스	5	15	38	135	145	150	155	1.4	3.3
캐나다	64	102	147	133	134	134	135	1.2	0.7

주: 통계자료는 2018년(추정치) 기준 상위 10개국만 제시함.
자료: USDA FAS psdonline.

12) KOTRA 해외시장 뉴스-상파울루 무역관('18.5.29.)
13) 식품의약품안전처 보도자료-니트로푸란계 대사물질 검출 미국산 냉동 닭고기 제품 회수 조치 및 검사 강화('18.4.10.)

05 요약 및 시사점

□ **각 연도 상반기 기준 우리나라의 농축산물 수입액은 2008~09년 세계금융위기 이후 경제회복과 거대경제권과의 FTA로 증가추세를 보이며, 국가별 수입순위 변동이 나타나기도 함.**

○ 상반기 수입액은 2009년 88.9억 달러에서 2018년 177.7억 달러로 연평균 8.0% 증가했으며, FTA 체결국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음.

- 전체 농축산물 수입액에서 FTA 체결국의 비중은 2010년 상반기 86.0%에서 2018년 상반기 86.5%로 소폭 증가했고, 앞으로도 더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국가별 수입액을 보면 미국이 매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2015년부터 ASEAN산 수입액이 중국산 수입액을 초과해 2위의 수입국으로 올라섬.

□ **농축산물 수입액에서 쇠고기, 돼지고기와 닭고기 등 축산물 수입규모가 크고, 국가 및 부위별 수입전환 추세가 나타남.**

○ 2018년 상반기 쇠고기 수입량은 미국산 선호도 증가와 냉장육 수요 증가로 연평균 7.6% 증가한 21만 7천 톤이며, 2018년 들어 미국산 수입량이 호주산 수입량을 초과함.

- 미국의 BSE('03.12.) 발생으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호주산으로 대체되었으나,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 이후 수입량이 증가해 미국산 수입량 비중은 48.9%를 차지

○ 2018년 상반기 돼지고기 수입량은 30만 7천 톤으로 수입단가 하락과 냉동가공육 원료 수요 증가 등으로 연평균 8.0% 증가

- 돼지고기는 주로 냉동돼지고기가 수입되고 있으며, 품질이 상대적으로 낮은 캐나다산 수입 감소로 EU산과 미국산으로 수입이 집중되고 있음.

○ 2018년 상반기 닭고기 수입량은 6만 7천 톤으로 연평균 11.3% 증가했으며, 미국의 HPAI 발병('14.12.)과 SEM 검출('18.4.) 등으로 브라질산의 독주체제가 굳어지고 있음.

□ **우리나라의 농축산물 수출은 수입보다 더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며, 특히 ASEAN과 미국으로 크게 증가**

○ 우리나라 농축산물 수출은 2009년 상반기 14.3억 달러에서 2018년 상반기 35.7억 달러로 연평균 10.7% 증가했으며, 전통적으로 일본이 차지하던 1위 수출국이 2018년 들어 ASEAN으로 전환됨.

□ **FTA 수입 특혜관세 활용률은 꾸준히 증가해 80.3%를 기록하고 있고, FTA 수출 특혜관세 활용률은 2015~16년에 감소한 데 이어 다시 증가추세로 전환**

○ FTA 수입 특혜관세 활용률은 페루, 호주, 캐나다와 콜롬비아가 90% 이상의 높은 수준을 보이며, 칠레, EFTA, 미국과 중국은 평균(80.3%) 이하의 활용률을 나타냄.

○ FTA 수출 특혜관세 활용률은 칠레, 싱가포르, ASEAN, 베트남과 콜롬비아를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가 평균(46.4%)보다 높은 활용률을 나타냄.

□ **농축산물 수출 증가에도 불구하고 농업부문 무역수지는 점차 악화되고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과 FTA 수출 특혜관세 활용률을 제고할 수 있는 대응방안 마련이 요구됨. 한편, 신흥시장으로의 수출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사전 전략을 수립하고 시행할 필요가 있음.**

○ 우리나라의 농축산물 무역수지는 2009년 상반기 74.6억 달러에서 2018년 상반기 142억 달러로 연평균 7.4% 증가했으며 역대 최대 무역수지적자를 기록함.
- 정부의 신남방정책에 따른 동남아시아 국가와 신북방정책에 따른 러시아 등으로의 수출이 증가하고 있으나 여전히 일부 국가에 집중됨.
- 동남아시아에서는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 등 일부 국가에 집중되고 있으며, 북방 국가에서는 러시아를 제외하면 수출규모가 모두 미미함.

○ FTA 수출 특혜관세 활용률이 FTA 수입 특혜관세 활용률보다 낮은데, 수출이 급증하고 있는 ASEAN과 시장규모가 큰 중국에 대한 수출 특혜관세 활용률이 특히 낮음.
- 농축산물 수출 시 특혜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국내 관련 제도의 개선 및 보완과 상대국에서의 통관상 애로사항 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민관 협의체 구성 등 실질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축산물을 주로 수출하는 국가들은 국가 자체적인 이력추적시스템, 청정 이미지 홍보 등으로 신흥시장으로의 진출을 꾸준히 시도하고 있으며, 실제 그 성과를 나타내 보이고 있음.
- 이는 우리나라 축산물의 신흥시장으로의 수출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음을 의미하므로, 우리나라도 기존 시장뿐만 아니라 신흥국가로의 축산물 수출시장을 개척하기 위한 선제적인 전략과 마케팅보드 설립 등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세계 축산물 시장의 공급과 수출량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반면, 비식용물질 검출, ASF 발생 등 주요 수출국의 수급상황 변화는 우리나라의 축산물 수입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따라서, 세계 축산물 시장 변화가 국내 농업부문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농축산물 수급 및 교역동향에 대한 지속적이고 면밀한 모니터링이 요구됨.**

○ 2018년 전 세계 쇠고기, 돼지고기와 닭고기 생산량은 전년 대비 각각 2.4%, 2.3%와 1.9%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수출량도 각각 5.1%, 0.7%와 2.2%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최근 우리나라 국민의 수입 축산물에 대한 거부감이 낮아질 뿐만 아니라 선호도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고급육과 더불어 육류가공품에 대한 수요 증가는 축산물 수입을 더 확대시키는 요인이 될 것임.

- 축산물 수입 증가에 따라 국내 농업인이 입을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수입량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농축산물 긴급수입관세 발동과 수입검역 강화 등 정부 차원의 선제적인 대응 노력이 필요한 시점임.